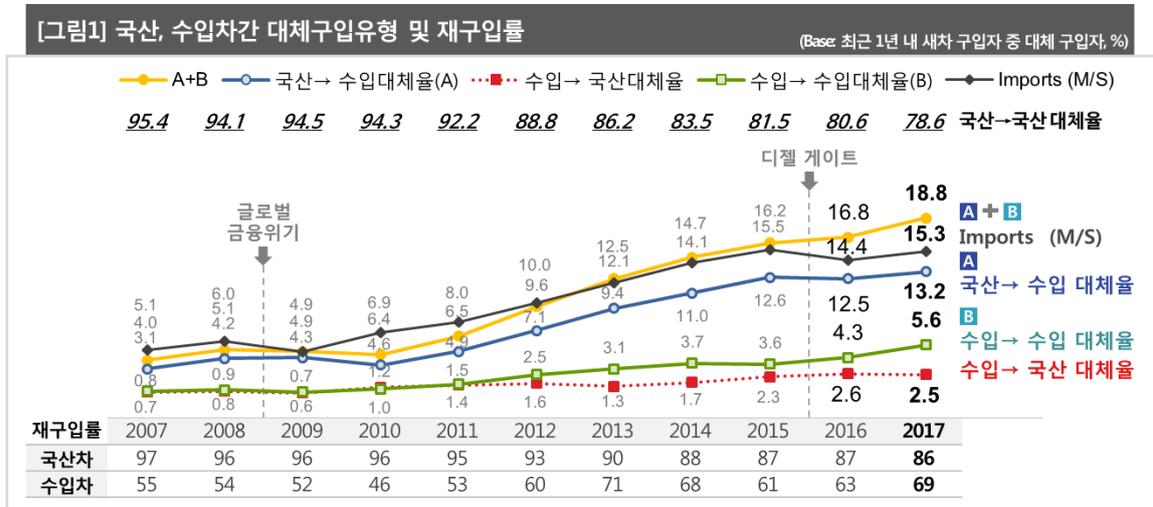


자동차 소비자 리포트 17/18-5 ; 수입차의 질주, 끝이 보이지 않는다

- 수입차 대체시장 점유율, 10년간 매년 1.5%p 신장
- 내년에는 20% 돌파 예상
- 디젤게이트의 영향 별로 크지 않아

구입한 새차 4대 중 3대는 쓰던 차를 처분하고 새로 사는 대체구입이다. 대체구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전체시장과 거의 일치하고, 국산차-수입차 간의 이동패턴을 보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디젤게이트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판매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매년 1.5%씩 급성장하고 있다. 수입차의 증가가 언제쯤 멈추게 될지 현재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해 온 대규모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새로 산 차와 그 이전 차는 무엇(국산 또는 수입차)인지를 물어왔다. 2007년부터 금년도 조사까지 지난 10년간 '지난 1년간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보인 대체패턴은 [그림1]과 같다.



지난 10년간 자동차 대체시장에서의 이동패턴을 보면 국산차를 타다가 다시 국산차를 구입한 '국산->국산' 이동의 구성비는 '07년 95.4%였으나 금년에는 78.6%로 16.8%p 감소했다[그림1]. '국산->수입'은 3.1%에서 13.2%로 4배 이상 커졌으며, 1% 미만이던 수입차 재구매 구성비는 5.6%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차의 대체시장 점유율은 10년 사이에 4.0%에서 18.8%로 4배 이상, 연평균 1.5%p씩 성장했다. 반면 수입에서 국산으로의 이행은 10년간 0.7%에서 2.5%로 매우 느리게 늘고 있다. 2년전의 초대형 악재 디젤게이트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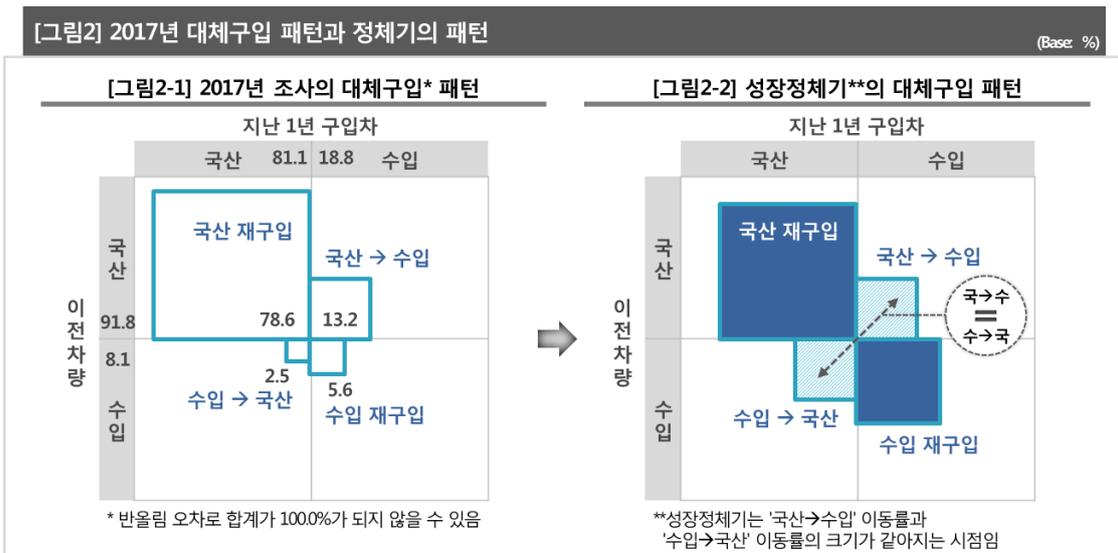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언제 증가세를 멈출지 알 수 없다.

점유율과 함께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재구입률이다. 지난 10년간 국산차 보유자의 재구입률은 97%에서 86%로 하락했고, 수입차의 재구입률은 55%에서 69%로 상승했다. 국산-수입의 재구입률의 차이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장기적으로 재구입률이 동일하면 시장점유율이 50% 대 50%가 됨을 뜻한다. 재구입률은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다.

[그림2-1]은 [그림1]을 요약해 도식화한 것이다. 금년도의 대체시장 상황을 정리하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18.8%이며, 이는 '국산->수입' 13.2%, '수입->수입' 5.6%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수입->국산'은 2.5%에 그치고 있다. 상품이 성장기에 있다면 유입이 유출보다 커야 하고, 정체기는 유입과 유출의 크기가 같아졌을 때를 뜻한다. 수입차 점유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림2-2]와 같이 '국산->수입'과 '수입->국산'이 같은 크기가 되었음을 말한다. 즉 현재 13.2%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산->수입'과 2.5%로 담보하고 있는 '수입->국산'이 같아져야 한다. 즉 한참 상승세인 '국산->수입'이 감소세로 돌아 한참 지나고, 오를 기미 없는 '수입->국산'이 장기간 상승세를 타 두 비율이 같아져야 수입차의 증가가 멈춘다는 얘기다. 이런 이동패턴의 추이는 국산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주요 자동차생산국가중 자국 승용차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 밖에 없다. 미국, 영국, 이태리 등은 모두 50%이상을 외국에 내준 상태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국 시장 장악력이 가장 큰 나라의 하나다. 85% 정도로 일본 다음이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자국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50년에 걸쳐 매년 1%씩 시장을 잃어 40%대로 밀렸다. 과연 한국이 어떤 선에서 수입차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17차 조사(2017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응답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자	<table border="1"> <thead> <tr> <th>Total</th> <th>1,887,946명</th> </tr> </thead> <tbody> <tr><td>2017년</td><td>96,123</td></tr> <tr><td>2016년</td><td>100,788</td></tr> <tr><td>2015년</td><td>105,672</td></tr> <tr><td>2014년</td><td>101,821</td></tr> <tr><td>2013년</td><td>101,701</td></tr> <tr><td>2012년</td><td>95,012</td></tr> <tr><td>2011년</td><td>97,356</td></tr> <tr><td>2010년</td><td>106,291</td></tr> <tr><td>2009년</td><td>91,129</td></tr> <tr><td>2008년</td><td>95,472</td></tr> <tr><td>2007년</td><td>105,149</td></tr> <tr><td>2006년</td><td>106,088</td></tr> <tr><td>2005년</td><td>139,825</td></tr> <tr><td>2004년</td><td>171,499</td></tr> <tr><td>2003년</td><td>118,195</td></tr> <tr><td>2002년</td><td>129,277</td></tr> <tr><td>2001년</td><td>126,458</td></tr> </tbody> </table>	Total	1,887,946명	2017년	96,123	2016년	100,788	2015년	105,672	2014년	101,821	2013년	101,701	2012년	95,012	2011년	97,356	2010년	106,291	2009년	91,129	2008년	95,472	2007년	105,149	2006년	106,088	2005년	139,825	2004년	171,499	2003년	118,195	2002년	129,277	2001년	126,458
Total	1,887,946명																																					
2017년	96,123																																					
2016년	100,788																																					
2015년	105,672																																					
2014년	101,821																																					
2013년	101,701																																					
2012년	95,012																																					
2011년	97,356																																					
2010년	106,291																																					
2009년	91,129																																					
2008년	95,472																																					
2007년	105,149																																					
2006년	106,088																																					
2005년	139,825																																					
2004년	171,499																																					
2003년	118,195																																					
2002년	129,277																																					
2001년	126,458																																					
표본프레임	컨슈머인사이트 IBP(Invitation Based Panel) 패널 및 주요 포탈 회원 중 할당 후 무선추출																																					
표본추출방법	성별/연령 고려 할당 추출																																					
자료수집방법	이메일 조사																																					
표본 수	연평균 100,000명																																					
주요 정보	U&A(Usage and Attitude) 정보 및 CEQ(Consumer Experienced Quality)																																					
조사 주기	매년 7월																																					

문의: 윤탈선 전무 Tel. 02) 6004-7655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Copyright©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탈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